

TV 오락프로그램의 메이크업에 나타난 불이미(不二美)

김민신

장안대학교 뷰티케어과 교수

The Non-dual Beauty of TV Makeup Shown in TV Entertainment Programs

Min-Shin Kim

Prof., Dept. of Beauty Care, Jangan University

(2015. 5. 21. 접수; 2015. 8. 18. 수정; 2015. 8. 21. 채택)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research into TV makeup types focusing on Korean aesthetics with recognizing importance of Korean thought amid what the global interest pays attention to South Korea thanks to the recent influence of Hanryu(Korean wave). The following are summary and result of this study. The non-dual beauty is an integrative concept of including ambivalence on the categorical difference in sex, culture and class by transcending the extreme binary division. As this is what reflected the open thought of pursuing balance of yin and yang in Korean people, it is being shown in the form of transcendence and far-outness through TV entertainment programs. Transcendence coexisted with maintaining relative relationship beyond separation in sex. Far-outness was pursuing free sensitivity immanent in the non-separated thought of transcending the past, the present and future. This trend is being indicated similarly to a change in its paradigm from separation to convergence these days. Accordingly, even makeup was showing similarity to the recent trend with being paid attention to the makeup of focusing on identity in sex and to the makeup of being coexisted the past, the present and future with the aspect of being mixed space time. The Korean aesthetics has been feeble in its influence compared to the Oriental image of focusing on China and Japan in the meantime. Hence, this study can be said to have significance in a sense of being the first consideration that compared TV makeup types of focusing on Korean aesthetics and suggested its developmental direction.

Key Words: Korean Aesthetics(한국적 미의식), TV makeup(TV 메이크업), The non-dual beauty(불이미)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최근 한국의 K-POP 열풍에서 보여 주듯이 세계적으로 한국 대중문화의 바람, 즉 한류를 통해

한국의 문화를 알리고 그 가능성에 대해 부가가치를 높이고 있다. 한국적 스타일이 아시아를 넘어 세계 문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 시점에 한국에 대한 관심이 한층 고조되고 있다. 이에 한국적 미의식에 근거한 우리의 문화 정체성을 확립하는 연구들이 각 분야에서 인식되기 시작

Corresponding author ; Min-Shin Kim

Tel. +82-10-3718-7199, Fax. +82-2-710-9872

E-mail : minshintop@lycos.co.kr

하여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특히 TV 메이크업은 단순히 얼굴만 아름답게 꾸미는 차원이 아니라 방송미술 분야의 한 요소로써 방송인의 가치관, 기호, 상황 등을 표현하는 도구로 문화의 중심에 서서 그 지평을 넓히고 있다(김민신, 2014).

한편, 21세기는 문화적 공존(共存)양상이 두드러지며 이러한 사회에서는 하나의 지배적, 우월적 가치 추구보다는 각각의 단편들이 조합, 중첩됨으로써 새로움을 추구하는 하이브리드(hybrid) 양상을 보인다(김경란, 2004). 다시말해, 21세기에 주목받고 있는 개념 중에 하나가 융합(김미현, 2005)으로 각 영역 간에 혼합과 해체의 상호교류 현상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다양한 융합현상에 대한 선행연구로 하미희(2009)는 시간, 문화, 성(性), 기술적 요소의 특성으로 분류하였고, 공차숙(2008)은 포스트모더니즘의 출현, 하위문화 등장, 남성역할의 변화, 매스미디어 영향의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또한, 방수진(2007)은 해체주의적 메이크업을 역사성, 양성성, 유희성으로 구분하였는데, 여기에서 역사성과 양성성은 성의 개념을 초월적 접근으로 보았으며 변영희(2010)는 역사, 시간, 성의 양면가치를 포함하는 통합적 개념으로 동양의 불이미를 언급하였다. 따라서, 21세기는 융합의 시대로 시공을 초월하고, 남녀의 외형적 치장방법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탈경계적 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선·악, 미·추, 빈·부, 남·녀의 이분법을 초월하는 불이미와 일맥상통하고 있다. 이는 심수현 외(2007)의 연구에서 최근 한류 문화는 세계적 관심의 중심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이에 독창적이고 독보적인 한국적 미의식이 이들과 함께 동반되어야 할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고 보았다. 이에 한국적 미의식 중에서 불이미에 대한 고찰에 대한 접근이 필요한 시점에 이르렀다.

한편, 2013년 미디어 이용시간은 하루 평균 167분 이용으로(미디어 이용시간, 2013) 일상생활과 가장 밀접한 미디어는 TV가 차지할 만큼 여전히 TV의 영향력은 다른 매체보다 가장 앞서 있으며 매스 미디어의 활용도가 매우 광범위(최수경, 2011)하다. 대중들은 미디어를 통해서 나타나는 연예인들을 롤모델(role-model) 삼아 그들의 모습을 연출하기도 하며 현대인의 의식구조와 행동양식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장준수, 2011).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적 미의식에 대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서양의 사유체계에서 이분법적으로 취급되었던 이성과 감성, 과학과 예술, 인간과 자연 등의 대립적 요소들을 융화하여 불이미를 고찰하여 TV 오락프로그램에 나타난 TV 메이크업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미 우리의 대중문화 중에서 TV 드라마와 가요는 1990년대 중국 및 일본에서 인기를 끌고 있으며(이유경, 2013), 이러한 흐름은 세계가 공유할 수 있는 보편성과 한국 고유미의 독자적인 가치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시기라고 보여진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한류의 열풍과 함께 한국적 미의식 중 불이미를 중심으로 TV 메이크업을 재인식하는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방송 미술분야에 실질적인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2. 연구 범위 및 방법

연구범위는 2000년부터 2014년으로 오락 프로그램에 한정하였고, 오락프로그램의 장르에는 드라마, 코미디·개그, 쇼·예능 프로그램이 포함된다(김현숙, 1988). 이 시기는 한류라는 이름으로 일본과 대만, 중국에 드라마가 본격적으로 수출되기 시작한 시점으로 드라마의 경우, 한류스타의 선두에 선 <꽃보다 남자>, <커피프린스>, <미남이시네요> 등의 프로그램에 출연한 김현중, 윤은혜, 장근석 등의 스타들이 출연한 작품으로 살펴보았다. 드라마는 공중파 방송의 중영된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살펴보았고, 코미디·개그 프로그램은 공중파와 CATV의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으며, 쇼·예능 프로그램의 경우 공중파 방송의 다시보기에 한계가 있어서 인터넷 등의 뉴미디어에 나타난 메이크업을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 활용된 그림 자료로, mbc, kbs, sbs, CATV와 미디어 보도자료 등의 인터넷 자료를 선정하였으며, 흥미유발과 재미를 추구하는 오락의 기능을 제공하는 장르로 드라마 9건, 코미디·개그 2건, 쇼·연예프로그램 4건을 연구대상(표 1)으로 하였다. 또한, 연구 방법으로는 문헌고찰 중심의 이론적 연구로써 전통사상의 미학적 관점에서의 한국적 미의식에

〈표 1〉 프로그램 분류

장르	프로그램
TV 드라마	커피프린스(2007), 아름다운 그대에게(2007), 다모(2007), 위대한 거상(2010), 꽃보다 남자(2009), 미남이시네요(2010), 안녕 프란체스카(2005), 빛과 그림자(2012), 계백(2011)
코미디, 개그	개그콘서트 (2011, 2012), 코미디 빅리그(2012)
예능	뮤직 비디오 (2006), 쇼 음악중심(2012), 무릎팍 도사(2009), 러닝맨(2012)

대한 이론적 논의를 위해 예술 및 철학, 미학 관련 문헌, 동양학, 의류학, 향장학 등의 서적 및 미디어에 나타난 시각자료를 활용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1. 불이미

한국의 미의식을 국내 학자들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고유섭은 ‘무기교적 기교, 무계획의 계획, 비균제성, 무관심성’이라 하여 자연스러운 것이라 하였고(고유섭, 1977), 국외 학자 중에서 안드레 에카르트(Andre Eckardt)는 한국인은 ‘타고난 예술에 대한 민족적 재능과 미적 심미안’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였다(조요한, 1999).

우리 민족의 고유한 신앙적 측면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천(天)에 대한 신앙으로(채금석, 고정민, 2009) 무속신앙의 영향을 받아 자연주의적 현세 중심주의와 조화론적 평등주의의 자연관에 기초한 사상적 구조를 갖는다. 한국 문화의 모태인 무교(巫敎), 즉 샤머니즘(shamanism)은 유·불·도교로 인해 민간신앙에 머물러 왔으나(최준식, 2000) 현재까지도 생활 문화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불교(佛敎)의 한국적 성격은 국난에 처해 호국불교의 모습을 보였고, 어느 종파에 매이지 않고 엇갈린 신조를 함께 모으는 회통불교(回通佛敎)-색(色)과 공(空)-유(有)와 무(無)총체와 개별-같음과 다름은 이원적 존재가 아니라 삼태극과 같은 원융을 형성하는 무분별한 세계의 특색을 나타냈다(한기두, 1980). 그러므로 불교가 강조한 불이(不二)의 근본을 중요시하는 것과 세속을 초탈하려는

공(空)의 입장은 서로 의지하여 존재하는 것으로 상호 연계성을 강조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불이(不二, non-dual)란 그 어원이 팔리어 advaya에서 ‘두 가지’라는 의미를 지니는데, 불이는 ‘두 가지 대립적인 것이 아닌 것, 두 가지의 평등’의 의미로 쓰이고 있다. 불이는 불교의 사상으로 불가분의 상호의존적 관계로 한 몸처럼 만나서 소통한다고 보는 것이다(박태원, 2006). 불교에서는 현실과 본질을 이분법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심색일여(心色一如), 공색일체(空色一切), 물심일체(物心一切)로 보아 이분법을 초월한 통합적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미(美)는 곧 추(醜)이며, 추(醜)는 또한 미(美)로 이는 모든 만물은 그대로의 조화인 것으로 분리되지 않음을 내포한다고 사료된다. 도가 사상에서 유무, 앞뒤와 같은 상반되어 보이는 것들이 서로 의지하고 있음을 밝힘으로써 세상 만물이 근원적으로 불이의 관계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서봉하, 김민자, 2007). 즉 주객을 분리하는 이원론적 세계관이 아닌 우주 내의 모든 형상이 상호의존적이라는 동양철학의 일원적 관점을 취하고 있다. 이상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예술 분야에 나타난 불이미를 보면 조선시대 도자기인 막사발(그림 1)에서 고유섭의 미론인 비대칭성, 비균제성의 미를 접할 수 있고(최준식, 2012), 분청사기(그림 2)는 15세기 후반의 것으로 선각(線刻)으로 된 분청사의 문양이 너무 자유로워서 마치 현대의 추상화를 연상케 한다. 이효진(2001)은 막사발과 분청사기는 장인의 무의식적 기예에서 비롯된 것으로 무엇에도 구애받지 않은 자유분방함과 익살스러움이 담겨있다고 보았다. 당시 분청사기는 사대부 뿐 아니라 서민들도 사용하던 그릇이라 이로서 서민들의 자유분방하고 꾸밈없는 성품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



<그림 1> 막사발
(출처:http://blog.naver.com)



<그림 2> 분청사기
(출처:http://search.daum.net)



<그림 3> 백자철화포도문호
(출처:http://kin.naver.com)

음을 유추할 수 있다. 18세기 전반의 포도 문양 백자 향아리(그림 3)는 형태에 있어서 윗부분이 불룩 나와 있어 위태로워 보일 수도 있지만 각기 다른 그릇 두 개를 붙여서 만든 것이라 육안으로도 이음새가 확인된다. 그래서인지 정확한 대칭을 이루지 않아 찌그러진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 최준식(2000)은 거문고의 야성적인 연주법, 판소리의 거친 창법은 자유분방함을 좋아하고 격식의 틀을 거부하는 한국인의 성향을 보여주며 판소리의 경우 부분적인 개작으로 생동감을 준다고 보았다. 이러한 연주법과 창법에서 한국인의 자기감정을 자유분방하게 발산하는 야성미를 발견할 수 있다. 한민족의 정서를 담은 살풀이는 한(限)-흥(興)-멋-태(態)를 갖춘 전통 무용의 백미로 한국미 중에서 절제미의 극치를 이룬다고 보았다(황경숙, 이주연, 2004). 다음은 한국 예술에 나타난 한국적 미의식의 특성 중 불이미를 중심으로 <표 2>에서 정리하였다.

2. TV 메이크업

TV 메이크업은 배우의 가장 필수적인 의사전달 수단으로써 그 목적은 배우의 모습을 정확하게 배역에 맞게 인물화하여 관객들로 하여금 필요한 성격적 사실을 이해시키기 위한 배역의 성격창조에 목적이 있다(박승배, 1991). TV 메이크업은 아름다움만을 추구하기 보다는 작품 속에 설정된 각 인물들의 직업, 연령, 시대적 배경들을 분석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즉 노인이나 실업자·흑인·백인 또는 상처·마보·괴기·유령 등의 배역 인물들 간에 이질감이 유발되지 않도록 각 인물의 개성을 살려 새로운 인물로 변모시켜 주어야 한다. 그리고 촬영이 지속되는 동안에도 최적의 상태가 그대로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

그러므로, TV 메이크업은 단순한 미화 목적의 메이크업이 아닌 방송영상의 원리나 프로그램의 특성을 파악하고 출연자의 이미지와 역할

<표 2> 한국예술에 나타난 불이미의 특성

분류	표현분야	특성
건축	전통대문	비대칭
공예	막사발	비대칭
	분청자	자유분방미
	포도문양백자향아리	비대칭, 불균형
무용	살풀이	즉흥성 자유분방미
음악	판소리	즉흥성 자유분방미
	아쟁	무아

에 맞게 표현해야 한다.

1) TV 오락프로그램과 메이크업

(1) TV 오락프로그램

국내에서 가장 보편적이고 널리 통용되는 장르별 분류기준으로 방송프로그램의 기능에 따라 보도, 교양, 오락으로 구분하며 방송에서 오락성의 범주에 속하는 것은 드라마, 쇼, 영화, 코미디가 있다. 일반적으로 오락 프로그램은 드라마를 비롯해 버라이어티 쇼, 시트콤, 코미디, 이야기 쇼, 퀴즈 쇼, 만화, 가정오락 쇼, 영화, 스포츠, 특별 이벤트 등이 포함된다.

영상미디어인 TV는 단순히 듣기만 해도 되는 청각 미디어와는 달리 시각적인 미디어로써 TV 드라마는 그 나라의 대중문화를 가늠할 수 있는 척도로 이용될 만큼 그 시대를 가장 잘 반영하는 대표적인 장르라고 할 수 있다.

(2) TV 메이크업의 경향

20세기 이후 산업화의 진행으로 화장품 공업이 발달하였고 잡지, 영화와 같은 매스미디어의 발달은 TV 메이크업의 대중화에 기여하였다. 일반적으로 오락 프로그램에 나타난 TV 메이크업의 경향을 보면 다음과 같다. 2000년대에는 다양한 스포키 메이크업이 나타나 그린, 블루, 골드, 실버, 퍼플 등 펄 아이세이드를 함께 사용하여 부드럽고 고급스런 느낌을 주거나 화려한 이미지로 나타났으며 후반으로 들어서면서 부드러운 메탈릭한 컬러의 아이 메이크업이 유행하였다. 또한 TV 메이크업의 특징적 경향의 하나가 바로 레트로(retro)라고 하는 복고주의의 유행을 들 수 있다. 패션에서의 ‘레트로’는 ‘회고의’,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는’, ‘옛 것을 그리는’이란 사전적 의미를 가진 ‘레트로 스펙티브(retrospective)’의 약자다.

최근 여성의 전유물로만 여겨졌던 메이크업은 여성만이 아닌 남성에게도 행해지고 있으며 남성은 메이크업을 하거나 여성과 같이 깨끗한 피부를 가꾸는 일에 관심을 갖고 있으며 머리를 길게 기르고 염색함으로써 전통적인 남성의 허

세를 허물어뜨렸다. 또한, 여성은 남성성을 강조하기 위해 눈썹이나 눈을 어둡게 칠하거나 마스크라나 립스틱을 바르지 않거나 남성의 수염을 착용하거나 머리를 짧게 잘라 남성성을 표현한다. 이것은 이성, 공격성, 용기, 힘 등의 남성적인 특성과 유연성, 인내, 순종의 여성적인 특성이 균형과 조화를 이루도록 성적 특성을 교차시킨 것이라 할 수 있다(채금석, 1996).

2) TV 메이크업에 나타난 불이미

메이크업에 표현된 불이미는 성과 민족, 시대, 중심과 주변의 경계를 분명하게 구분하지 않는 모호한 의식에 이 모두를 포함하는 것으로 메이크업에 나타난 불이미는 인간의 본질에 접근하기 위해 남녀의 이원론적 구분을 뛰어넘는 것으로 인간의 본성 추구 및 인간사회의 조화에 집중한다. 따라서, 메이크업에서 불이미는 성의 경계를 분명하게 구분하지 않는 동양의 미분화 의식에 조화와 공존을 모색하고, 자유분방은 자연 회귀적 경향이나 전통 문화 및 역사 회귀 경향으로 시대를 넘나드는 자유로운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1) 융합과 초월

21세기에 주목을 받고 있는 개념 중에 하나가 융합(fusion)으로 이는 동양과 서양, 과거와 미래, 주체와 객체 등의 상반되는 개념을 포함한다. 특히 21세기의 변화에 따른 디지털 기술은 유비쿼터스 기술이 언제 어디서나 존재하는 융합화 환경을 만들어 가고 있다. 초월의 사전적 의미는 어떠한 한계나 표준을 뛰어넘는 것으로 서양의 이분법적인 분석과 달리 동양의 통합적 사고를 통해 공존과 조화를 모색한다. 따라서 초월은 이원론적 논리성을 넘는 것으로써 모든 대상을 대립관계가 아닌 전체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으로 성, 민족, 시간 등의 개념을 열린사고로 바라본다. 즉 이러한 흐름은 최근에 등장한 메트로 섹슈얼의 젊은 남성들에게서 성에 대한 시각을 해체하여 남녀를 구분 짓는 이분법적 요소들에서 벗어나고 있으며 또한 과거, 현재, 미래의 시간을 초월한 다양성을 혼합함으

로써 스타일의 융합화 경향(표 3)을 보이고 있다. 그러므로 여성의 성 역할이 변화되는 페미니즘의 등장과, 남성의 여성적 생활을 추구하는 메트로 섹슈얼의 등장으로 남녀의 외형적 치장 방법도 경계가 무너지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메이크업 전반에 나타나 최근의 트렌드인 남성들의 뷰티에 대한 높은 관심으로 나타나 남성과 여성의 성 구분을 초월한 각자의 개성에 따른 감각을 추구하기에 이르렀다.

(2) 모호적표현 중심

최근 융합을 추구하는 사회·문화적 요인의 대두로 TV 오락프로그램에는 성의 모호적 표현을 추구하는 메이크업이 새로운 경향으로 나타나고 있다. 여성의 카리스마 있는 남성적 이미지와 남성의 부드러운 여성적 이미지가 각자의 개성을 표현하고자 하는 성의 모호함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같은 추세는 패션에서 이미 반영되었다. ‘유니섹스 룩은 의복을 통해 여성미와 남성미를 초월하여 이성의 요소를 공유한 현상으로서 성 개념을 탈피한 성의 혁명’(Anne hollander, 1996)의 연구가 선행된 바 있다. 남녀의 경계를 무너뜨려 남자와 여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인간 그 자체로서의 의미를 갖는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화는 의상이나 메이크업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융합을 연출하는 최근의 트렌드와 일치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메이크업의 대표적인 유형은 스모키 메이크업, 앤드로지너스 메이크업, 복고 메이크업, 사이버 메이크업을 들 수 있다.

① 스모키 메이크업

스모키 메이크업은 ‘검은 연기나는’의 뜻으로 아이라인에서 눈 주변에까지 번진 듯한 그라데이션 테크닉을 사용하여 눈매를 강하고 또렷하게 표현하여 눈을 강조하는 메이크업을 의미한다. 1920년대 가르손느 룩과 60년대 모즈 룩, 70, 80년대의 핑크와 고스 룩의 블랙 패션과 검은 눈화장이 유행하였고, 1990년대는 세기말적 불안과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사회 전반적으로 등장하면서 뱀파이어를 연상시키고 퇴폐적인 이미지를 나타내는 스모키 메이크업이 나타났다(그림 4). 눈 주위에 어떤 색을 어느 범위까지 번지게 하는가에 따라 다양한 느낌으로 표현되므로 여성적이거나 남성적인 다양한 이미지로 연출할 수 있는 메이크업이다.

② 앤드로지너스 메이크업

성의 혼합 이미지는 남성과 여성의 이미지를 모두 느낄 수 있는 양성적 이미지와 남성과 여성의 이미지가 거의 같은 비율로 혼합된 중성적 이미지가 있다. 최근 여성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메이크업은 여성만이 아닌 남성에게도 행해지고 있으며 여성과 같이 깨끗한 피부를 가꾸는 일에 관심을 갖고 머리를 길게 기르고 염색함으로써 전통적인 남성의 허세에서 벗어나고 있으며, 여성은 눈썹을 짙게 하거나 머리를 짧게 하여 남성성을 표현한다. 이러한 것은 성적 특성을 교차시킨 것이라 할 수 있다(그림 5).

③ 복고 메이크업

과거 유행했던 메이크업 스타일을 재현한 표현방법으로 1930년대 레트로 스타일과 1950년대 레트로 스타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복고는 19세기와 20세기 영화산업과 밀접한 연관이 있

<표 3> 트렌드의 발생배경 및 내적의미와 외적표현

트렌드	발생배경	내적 의미	외적 표현	
융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영역의 다양성·가변성수용 • 상호교류 확대 • 디지털기술 발달, 창의적 결합 <p style="text-align: center;">↓</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의 해체 • 과거·현재·미래의 복고·미래지향 절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이사상 • 무위자연 • 일체개공 • 음양오행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0·60년대 복고적이미지 (눈화장: 굵은 아이라인, 속눈썹 강조, 윤곽화장: 얼굴음영 강조) • 미래적이미지 (피부표현: 필감의 번쩍임) 	불이적 표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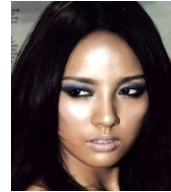
<그림 4> 드라마
(출처: <http://blog.naver.com>)



<그림 5> 쇼·예능
(출처: <http://blog.naver.com>)



<그림 6> 드라마
(출처: <http://news.naver.com>)



<그림 7> 쇼·예능
(출처: <http://search.daum.net>)

는데, 1930년대 레트로 스타일은 헐리우드 영화가 전성기를 맞이하던 이 시기의 영화 주인공들의 영향을 받아서 그레타 가르보의 휘어진 활모양의 눈썹과 눈두덩이 움푹 들어간 아이홀 기법의 눈화장을 재현하고, 1950년대 레트로 메이크업은 화려함과 사치스러운 의상과 함께 마릴린 먼로, 오드리 햅번 등의 패션 아이콘으로 통한다(그림 6). 마릴린 먼로풍의 하얀 피부표현과 아이라인을 강조한 기법, 빨간 입술과 입가의 점까지 관능적이고 매혹적인 메이크업으로 나타나며, 오드리 햅번은 눈꼬리를 두껍게 강조하고 뒤로 뺀 아이라인이 곡선의 형태를 보여서 청순함과 보이쉬한 이중적인 느낌을 주는 스타일로 나타난다(김정희, 2011).

④ 사이버 메이크업

2000년 이후 패션에 등장한 미래주의에서는 원색적 색상의 표현이 더 다양한 형태로 형성되었고 이러한 특성은 메이크업에도 그대로 나타났다. 우주공간, 도시공간에서 금, 은의 반짝이는 금속색상이 가지는 기계적인 특성과 차가운 느낌의 금속 소재의 사용으로 미래주의 메이크업에서 자주 사용된 방법이 피부의 질감 표현이다(그림 7). 즉 기계의 차가운 특성을 매트한 질감이나 글로시, 펄이나 글리터를 이용한 반짝임, 그리고 광택이 나는 느낌의 글로시 등의 방법을 통해 미래주의를 표현하였다. 내추럴을 기본으로 화이트, 페일핑크의 글로쉬한 반짝임과 메탈릭 하면서 환타스틱한 이미지가 연상되도록 극단

<표 4> 불이적 메이크업의 특성

	스모키 메이크업	앤드로지너스 메이크업	레트로 메이크업	사이버 메이크업
컨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의 특성을 교차시키거나 •인간으로의 접근을 추구한 이미지 •과거에 유행했던 스타일의 재현 •미래 스타일의 표현 	강조한 모호한 이미지	
피부 표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완벽한 피부 표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남성적 거친 피부표현 •여성적 깨끗한 피부표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화이트닝, 매트한 피부표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펄, 글로시
눈 화 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눈매를 검게 표현 •번짐, 코올 기법으로 표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눈썹: 남성적 힘의 강한 눈썹 •여성적 곡선 눈썹 •아이세도우: 남성적 색조 생략 •여성적 눈매 표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마릴린먼로의 아이라인 •오드리햅번의 스트레이트 아이라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금은 펄감
볼 화 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음영과 윤곽 표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남성적 강한 윤곽표현 •여성적 화사한윤곽표현 		



<그림 8> 드라마
(출처: <http://blog.naver.com>)



<그림 9> 드라마
(출처: <http://xportsnews.hankyung.com>)



<그림 10> 쇼예능
(출처: <http://media.daum.net>)



<그림 11> 코미디개그
(출처: <http://blog.naver.com>)



<그림 12> 드라마
(출처: <http://blog.naver.com>)

적인 이미지를 표현한다.

따라서 불이적 메이크업의 특성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표 4).

III. 연구결과

불이는 불교사상으로 불가분의 상호의존적 관계로 인간의 정체성, 내적 상태와 외적 가치에 관한 본질에 대한 양자택일이 아니라 둘 다 혹은 제3의 새로운 것으로 상호보완적 포용을 통해 대립구도로 야기되는 모순과 갈등을 조화로 이끌어낸다. 초월은 성의 경계를 분명하게 구분하지 않는 동양의 미분화 의식에 조화와 공존을 모색하고, 자유분방은 자연 회귀적 경향이나 전통 문화 및 역사 회귀 경향으로 시대를 넘나드는 자유로운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최근 여성의 전유물로 여겨져 온 메이크업은 이미 70년대의 유니섹스(unisex), 80년대의 앤드로지니스(androgynous), 90년대의 크로스 오버(cross over)를 통해 남성성과 여성성이 공존하여 나타나기 시작했고, 2000년대에는 메트로 섹슈얼(metro sexual), 크로스 섹슈얼(cross sexual), 그루밍(grooming) 등 패션과 뷰티 스타일을 통해 다채로운 특성의 남성들이 등장하면서 자신의 개성과 아름다움을 표출하기 위한 방법으로 메이크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추세다. 그러므로 TV 오락프로그램에 나타난 TV 메이크업의 유형은 글로벌 트렌드의 융합을 추구하는 특성에서 보여지듯이 시간과 지역, 성에 대한 혼합과 융합은 한국의 미의식인 불이미와 그 맥을 같이하고 있다.

1. 초월

초월의 사전적 의미는 어떠한 한계나 표준을 뛰어넘는 것으로 서양의 이분법적인 분석과 달리 동양의 통합적 사고를 통해 공존과 조화를 모색한다.

즉 인간의 본질에 접근하기 위해 남녀의 이원론적 구분을 뛰어넘는 불이성은 인간의 본성 추구 및 인간사회의 조화에 집중한다. 젠덴(V.zenden)은 남녀 성의 공존을 의미하는 양성성(androgyny)을 성의 고정관념에 관계없이 인간의 감정과 역할 가능성을 표현하도록 허용하는 기준이라고 설명하고 있다(정세희, 2008). 메이크업에 나타난 성에 대한 개방은 남녀의 성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명칭으로부터 벗어난 중성 및 양성적 표현 등 남녀의 성이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은 복잡, 모호한 양상을 의미한다. 메이크업에 나타난 초월의 사례는 다음과 같다.

MBC 드라마 ‘커피프린스’에서 고은찬 역의 윤은혜(그림 8), SBS 드라마 ‘아름다운 그대에게’ f(x) 설리(그림 9)를 통해 알 수 있다. 이들은 전체적으로 미소년 같은 얼굴에 중성적인 모습을 연출하고 있다. 이는 글로벌 미적가치인 성의 무경계를 추구하는 융합의 이미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여성성을 부각시키는 곡선적인 선의 형태나 색채를 배제한 다듬지 않은 직선의 눈썹과 뚜렷한 표정, 소년 같은 헤어스타일이 더해져 여성성의 특징을 모호하게 한다. 쇼·예능 프로그램에서 이효리의 메이크업(그림 10), 코미디 개그 프로그램의 신보라 메이크업(그림 11)은 강하게 보이는 짙은 눈썹과 귀밑머리, 색상을 의도적으로 회피하고 있으며 중절모의 소품과 더불어 남성의 이미지를 수용하고 있다.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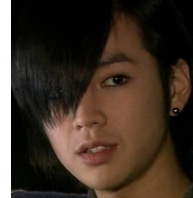
<그림 13> 드라마
(출처: <http://tvdaily.asiae.co.kr>)



<그림 14> 드라마
(출처: <http://blog.naver.com>)



<그림 15> 쇼예능
(출처: <http://media.daum.net>)



<그림 16> 드라마
(출처: <http://cafe.naver.com>)

러한 메이크업의 연출은 이원론적 구분을 탈피하여 인간의 본질에 접근하기 위한 것으로 남녀성이 공존하는 모호한 양상의 앤드로지너스 메이크업과 유사하게 나타난다. MBC 드라마 ‘다모’에서는 채옥 역의 하지원(그림 12), KBS 드라마 ‘거상 김만덕’의 이미연(그림 13)은 야심에 찬 캐릭터를 연출하기 위해 상승 곡선의 눈썹으로 강한 이미지의 눈매를 연출하고 있다. 이는 여성성을 은폐하려는 의도가 보임으로써 남성성과 여성성을 공존시켜 제시하고 있다. KBS 드라마 ‘꽃보다 남자’의 김현중 메이크업(그림 14)과 MBC 쇼 음악중심에서의 메이크업(그림 15), SBS 드라마 ‘미남이시네요’에서 황태경역의 장근석 메이크업(그림 16)을 통해서 예쁜 남자의 이미지를 발견할 수 있다. <그림 14>은 이목구비의 표현에 있어 지저분한 잔털을 제거하여 깔끔하게 정돈된 눈썹의 형태, 턴티드로 붙게 물들인 듯한 입술의 질감이 부드러운 갈색의 헤어 컬러와 함께 부드러운 이미지를 주고 있다. 이러한 여성성을 부각시키는 완만한 곡선의 부드러운 이미지는 성 구분을 모호하게 만들어 중성 또는 양성적 이미지를 보여준다.

따라서 이상의 논술을 토대로 메이크업에서 초월적 표현은 첫째, 여성의 경우 여성성을 은폐하기 위해 술이 많고 상향의 강한 이미지의 눈썹, 넓고 각이 진 입술선과 거친 피부톤 색상의 메이크업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현대극에서는 헤어 스타일을 짧게 자르거나 사극의 경우 상투를 틀어 연출하였다. 둘째, 남성의 경우 여성성을 표현하기 위해 깨끗한 피부표현과 정교하게 다듬은 눈썹, 눈매를 또렷하고 부드럽게 표현하고, 턴티드나 립스틱을 이용해서 볼륨감 있는 입술을 표현하여 뷰티 메이크업을 연출하

였다. 여기에 밝게 염색한 머리 스타일은 부드러운 이미지와 함께 여성성을 더욱 더 부각시켰다. 이는 음양으로 분류된 이원적 범주의 형식과 상응하는 것으로 상호 배타적이지 않고 보완적인 형태로 나타나고 있으며 성의 신체적·사회적 특징을 공존시켜 조화로운 인간상을 제시하려는 일원적 측면을 반영한 것으로 여겨진다. 즉 성의 구분이 의미 없음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성이라는 영역을 초월한 인간이라는 개념으로 확대시킨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위의 논점을 중심으로 메이크업에 있어서의 초월은 성(性)을 통해 남녀의 신체적인 특성을 부각시키는 이분법적 표현방식에서 벗어나 음양조화를 추구하는 상대적 관계성을 유지하며 상대적 공존을 이루는 불교의 중도론과 유무불이 사상의 영향, 도교의 무위 사상과 상호 연관되어 여성성과 남성성이 한 공간에서 조화를 이루는 동양의 열린 사고를 반영한 것으로 사료된다.

2. 자유분방

자유분방은 규범이나 질서 혹은 격식에 얽매이지 않으려는 한국적 미의식에 내재된 성향으로 기존의 형태를 무시하고 다양하게 표현하는 구속받지 않는 자유로운 미적 표현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전통적인 고정관념을 버리고 새로운 추구를 실현성과 창조성으로 개성적 차별화 욕구를 충족하는 조형미를 나타낸다. 따라서 자유분방은 시대를 초월한 향수를 자극하거나 미래를 갈망하는 형태의 일원미의 미분리 사상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다. 메이크업에 나타난 자유분방의 사례는 다음에서 살펴볼 수 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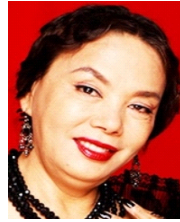
<그림 17> 쇼예능
(출처: <http://blog.naver.com>)



<그림 18> 쇼예능
(출처: <http://imagesearch.naver.com>)



<그림 19> 쇼예능
(출처: <http://blog.naver.com>)



<그림 20> 드라마
(출처: <http://news.naver.com>)



<그림 21> 드라마
(출처: <http://blog.naver.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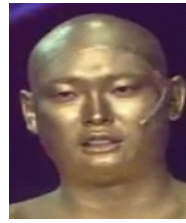
<그림 22> 드라마
(출처: <http://cafe.naver.com>)



<그림 23> 드라마
(출처: <http://leesann.tistory.com>)



<그림 24> 쇼예능
(출처: <http://search.daum.net>)



<그림 25>
코미디.개그
(출처: <http://search.daum.net>)

다. 쇼·예능 프로그램에서 ‘유키스’의 메이크업(그림 17)과 ‘G-드래곤’의 메이크업(그림 18)을 보면, 각각 민속적인 문양의 비대칭적 타투를 통해서 동양과 서양의 서로 상반되는 것들이 혼합되어 새로운 이미지를 연출하고 있다.

<그림 17>는 아프리카 특유의 붉고, 푸른 원색적인 모티브를 얼굴에 그려 넣음으로써 원시적인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고, 미스에이 페이의 경우(그림 19), 이마 정중앙에 별을 붙여 인도여인의 킬라크 부착의 민속적인 느낌을 연출하였다. 이는 지역적 민족성과 시대적 감성, 창조성이 절충되어 자유로운 표현의 다양성으로 시간을 넘어선 자유분방한 조형미를 표현하고 있다. MBC 드라마 ‘프란체스카’에서의 김수미 메이크업(그림 20)과 MBC 드라마 ‘빛과 그림자’의 60년대를 배경으로 한 남상미(그림 21), 안재욱(그림 22)의 메이크업을 보면, 시간의 공존이 보여진다. <그림 20>에서는 1950년대 마릴린 몬로의 활처럼 흰 눈썹의 형태와 붉은 립스틱으로 표현된 복고적 이미지가 현대의 클리터한 필감과 함께 복합적으로 표현되었다. 또한 일자의 상향

눈썹과 누드 톤의 립스틱, 앞머리를 내린 뱅스타일에서 오드리 햅번 스타일(그림 21)과 구렌 나루의 복고풍 헤어스타일(그림 22)에서 록앤롤의 황제 엘비스프레슬리의 이미지를 모방·변형함으로써 시대를 아우르는 자유로움을 표현하였다. 이는 과거와 현재의 시간적 경계를 허무는 일원적인 공존을 보여준다.

또한 MBC 드라마 ‘계백’의 오연수의 메이크업(그림 23)을 보면, 이집트의 아이 메이크업을 차용하여 과장되게 상향으로 올려 그렸다. 이는 영화 클레오파트라에서 요부역을 맡았던 엘리자베스 테일러가 연출한 눈매를 표현한 것으로 레트로 경향의 팜프파탈의 파괴적인 이미지를 현대에 와서 스모키 메이크업과 같은 다양한 형태로 새롭게 연출한 것이라 유추할 수 있다. 이효리의 메이크업(그림 24)과 KBS ‘개그 콘서트’의 체포왕(그림 25)에 나타난 메이크업을 보면, 글로시한 금속성의 피부표현과 차가운 색상 아이세도우의 필감과 질감의 싸이버틱한 메이크업을 볼 수 있다. 이는 미래를 갈망하는 형태의 시간의 미분리 사상을 나타내는 미래지향적인

이미지, 사이버적인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이상의 논술을 토대로 자유분방에 나타난 메이크업의 특성은 첫째, 시간을 아우르는 자유로운 형태의 조형미를 보이고 있다. 과거를 추억하며 과거에 유행하였던 것이 다시 대두되어 현재에 변화된 형태로 유행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즉 1950년대 메이크업의 구성요소인 약간 두꺼운 아치형눈썹, 강한 아이라인과 풍성한 속눈썹, 붉은 립컬러가 현대의 트렌드와 결합하여 자연스러우면서 약간 두꺼운 눈썹, 풍성한 마스크라로 속눈썹을 강조하고 붉고 투명한 립컬러가 중, 고채도의 글로시 질감의 립 컬러들로 표현되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즉 레트로 이미지는 과거와 현재 또는 미래의 시대별 양식을 혼용하거나 과거의 양식을 재조명하여 재현·반복되는 형태로 나타난다. 이는 과거의 추억을 그리워하는 현대인의 회귀본능이 과거의 메이크업을 소재로 하여 현대인의 감성과 창조성으로 혼합, 절충 표현되고 미래를 갈망하는 다원주의적 조형미를 나타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지구촌을 하나로 하는 공간적 자유로

운 형태의 조형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전통의 재현이 아닌 각국의 특징을 대표할 수 있는 요소를 부분적으로 차용함으로써 다민족적 이미지를 다양한 방식으로 전개시킨다. 이처럼 타국의 이미지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것은 새로움과 신비로움을 지향하는 유행의 속성이기도 한 반면, 국가 간 경계를 초월한 융합을 추구하는 시대상의 반영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형태는 구속되지 않은 자유분방함이 스모키 메이크업과 과거와 현대를 아우르는 사이버 메이크업, 복고 메이크업으로 표현되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앞의 불이미에서 보여주는 메이크업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논점을 논할 수 있다. 불이미에 나타난 메이크업은 여성·동양·민족 등 타자화 되어온 음적 개념들이 가치를 인정하고 타자성의 수용을 통해 전통개념을 모호하게 하였다. 이는 불교의 제법불이(諸法不二)와 같이 이원적 존재가 아니라 일원성을 지향하는 것으로 남녀의 성 구분을 초월해 음양의 조화를 모색하는 공존의 형태로 나타난다. 즉 음과 양이

<표 5> 메이크업에 나타난 불이미의 특성

표현형식	초월	자유분방
기법	1. 피부표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의 남성성 지향 • 남성의 여성성 지향 ⇨ 성의 경계를 허무는 모호한 표현	1. 피부표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부표현 완벽한 커버 ⇨ 과거회상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부표현 금속재질 ⇨ 미래지향적
내적 의미	2. 아이메이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눈화장의 모호한 표현 ⇨ 각자의 개성 중시	2. 아이메이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이메이크업의 과장·변형 ⇨ 50,60년대 복고적 이미지 차용
외적 표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자화된 음적 개념의 가치를 인정하는 열린 사고로써 성을 초월한 인간 본성의 추구, 인간 사회의 조화에 집중 • 상반되는 것들의 상대적 관계, 공존의 관점에서 이분법적 논리 초월 • 제법불이·상생원리의 통합적 사고를 통해 공존·조화 모색 • 불교의 제법무아, 무아사상, 도교의 무위의 자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의 형태·색채 배제 • 양성성이 공존하는 모호성 • 개성적 차별화 욕구 충족 • 과거·현재·미래의 혼합 양상

서로 다르지만 조화를 이루는 상생원리(相生原理)로 나타난다고 보아진다. 또한, 이는 시·공간의 혼재는 과거와 현재, 미래와의 절충의 형태로 융합적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는 앞에서 언급한 트렌드에서 보여지는 장르와 장르의 결합으로 이어지는 융합적 추세와 유사하다. 즉 중심과 주변의 구분을 초월해 소외된 주변의 타자화된 가치를 인정하는 것으로 음(陰)에 해당하는 개념에 의미를 부여하여 음양의 조화를 추구하는 동양 사상적인 접근이며 다양성을 인정하는 열린 사고이며 개방된 사고라고 할 수 있다. 즉 여성성에 간하지 않고 우주만물의 원천으로 여기는 도교의 현빈(玄牝)과 같은 의미이며, 이는 남녀의 성을 초월해 인간의 조화라는 점에 초점을 두어 마음을 통해 얻어지는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의 자세를 보여준다. 다시 말해 메이크업의 불이미는 여성의 부드러운 이미지 보다 거친 질감의 남성성을 부각시키기도 하여 양성 이 공존하기도 하며, 색상, 질감을 생략함으로써 이분법적 표현에서 벗어나 성 구분을 모호하게도 한다. 이러한 점은 메이크업에 있어서 성을 초월한 인간의 조화에 의미를 두고 있다고 사료된다(표 5).

V. 결론

21세기에 주목 받고 있는 개념 중에 하나가 융합(fusion)이다. 이는 각 영역간의 상호 교류 현상으로 새롭게 창조되는 열린 개념으로 이미 남성과 여성을 초월한 이성의 요소를 공유한 듀얼리즘의 등장(채금석, 1996)이 본격화 되었고, 이는 두 가지 대립이 아닌 두 가지 평등의 의미를 내포한 불이미(不二美)와 일맥상통한다. 따라서 본 논문은 최근 한류의 영향으로 한국적 대중문화가 세계적 관심을 받고 있는 가운데 한국적 미의식 중 불이미를 중심으로 TV 오락프로그램에 나타난 메이크업의 유형을 연구하였다. 이는 첫째, 한국적 미의식 중에서 불이미는 이원론적 세계관이 아닌 우주 내의 모든 형상이 상호 의존적이라는 동양철학의 일원적 관점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는 형식적으로 정해진 틀

을 깨고 초월과 자유분방을 통해 음과 양의 양분된 구분으로부터 조화로운 열린 전체성을 추구한다. 둘째, TV 오락프로그램에 나타난 메이크업의 유형으로 탈장르의 사회·문화적 현상은 메이크업에 있어서 성의 모호적 표현에 중점을 둔 TV 메이크업의 경향으로 나타났다. 이는 융합을 추구하는 최근의 트렌드가 반영되어 앤드로지너스 메이크업, 스모키 메이크업 등의 특성을 보이고 있었다. 셋째, 한국적 미의식에 근거한 TV 오락프로그램에 나타난 메이크업의 유형적 특성으로 불이미(不二美)는 극단적인 이분법적 구분을 초월해 성(性), 문화, 계층의 범주적 차이에 대한 양면가치를 포함하는 통합적 개념이다. 이는 한국인의 음양조화를 추구하는 열린 사고를 반영한 것으로 TV 오락프로그램을 통해 초월과 자유분방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었다. 초월은 성의 분리를 넘어 상대적 관계성을 유지하며 공존하고, 자유분방은 과거와 현재, 미래를 초월한 미분리 사상을 내재한 자유로운 감성을 추구하고 있다. 이는 불교의 공사상과 도교의 현빈의 영향을 받아 타자화된 음적 개념의 가치를 인정하는 열린 사고로써 상반되는 것들의 상대적 관계, 공존의 관점에서 인간 본성을 추구하고 인간 사회의 조화에 집중하는 내적 의미를 포함한다. 이러한 추세는 최근 분리에 융합으로 그 패러다임의 변화와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따라서 메이크업에도 성의 모호적 표현에 중점을 둔 메이크업과 시·공간의 혼재된 양상으로 과거와 현재, 미래가 공존하는 메이크업이 주목받기 시작하면서 통합적 사고 체계와 이미지의 혼합, 장르의 절충과 혼합 등 최근의 문화적 융합으로 나타나는 트렌드와 유사성을 보이고 있었다.

본 연구는 최근 한류에 대한 관심과 열풍이 세계적으로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연예인들에 대한 메이크업을 한국적 미의식을 중심으로 새롭게 해석함으로써 한국적 메이크업의 세계화에 더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따라서 그동안 감춰져 있던 한국적 미의식의 독창적인 표출 방식을 늦게나마 엿볼 수 있는 작은 기회라도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특히 TV 매체를 통해 드라마, 코미디·개그, 쇼·예능 프로그램에 나타난 여러 가지 유형의 한국적 메이크업을

분석하고 이를 새로운 트렌드로 제안함으로써 대중매체와 함께하는 한국적 메이크업의 기초가 확립될 수 있기도 함께 기대한다. 나아가서 한류를 이끄는 아이돌 가수들과 스타들의 세계 진출에 있어 한국적 미를 중심으로 한 메이크업 분야의 세계화에 대한 기대도 부추기고 있다.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가 이번 논문을 통해서 제시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아울러 이 논문을 통해 한국 연예문화의 세계화를 중심으로 TV 메이크업의 미래 흐름에 대한 예측과 함께 미래의 방송 미술과 메이크업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고유섭. (1977). *한국미의 산책*. 서울: 동서문화사.
- 공차숙. (2008). *남성의 헤어스타일과 메이크업에 나타난 성(性)성의 하이브리드 현상*.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경란. (2004). *다문화 시대 하이브리드 패션*. 성신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미현. (2005). *융합화 문화변화에 따른 패션패러다임의 특성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민신. (2014). *TV 오락프로그램에 나타난 메이크업의 해학미*. *한국의상디자인학회지*, 16(2), 127-137.
- 김정희. (2011). *영화의상과 메이크업 헤어 분석을 통한 캐릭터 이미지 비교*. 성균관대학교 디자인 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현숙. (1988). 정치풍자 코미디의 현실과 가능성. *방송연구*, 여름호, 224.
- 박태원. (2006). *원효의 불이(不二사상)*. 서울: 새한철학회.
- 박승배. (1991). *한국의 무대 공연에 나타난 분장에 관한 연구*. 홍익대 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방수진. (2007). *자크데리다 해체주의적 개념에 의한 현대 메이크업에 관한 연구*. *한국미용학회지*, 13(3), 1086-1098.
- 변영희. (2010). *패션뷰티디자인에 표현된 탈현상성과 자유분방성에 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서봉하, 김민자. (2007). 불이사상에 영향을 받은 전통 복식의 조형미. *복식학회지*, 57(3), 167-168.
- 심수현, 나유신, 채금석. (2007). 한국적 패션디자인의 현황 연구. *한국패션뷰티학회지*, 5(1), 14-23.
- 이유경. (2013). *한류 K-pop 패션에 나타난 고스(Goth) 이미지 연구*. *한국의상디자인학회지*, 15(2), 66-75.
- 이효진. (2001). 1990년대 이후 한순 서양복식에 표현된 자유분방함의 미. *패션비즈니스학회*, 5(1), 39-40.
- 장준수. (2011). *한국의 미디어루키즘에 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정세희. (2008). *현대패션에 나타난 탈중심화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조요한. (1999). *한국미의 조명*. 서울: 열화당.
- 채금석, 고정민. (2009). 백제복식문화연구 I. *한국 의류학회지*, 33(9), 1347-1360.
- 채금석. (1996). *의복과 성*. 서울: 경춘사.
- 최수경. (2011). *매스미디어가 여성의 의복과 메이크업 및 헤어디자인에 미치는 영향*. *한국의상디자인학회지*, 13(2), 35-46.
- 최준식. (2000). *한국미 그 자유분방함의 미학*. 경기: 효형출판사.
- 최준식. (2012). *한국인은 왜 틀을 거부하는가*. 서울: 솔나무.
- 하미희. (2009). *현대 패션에 나타난 하이브리드 디자인 트렌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한기두. (1980). *한국 불교사상 연구*. 서울: 일지사.
- 황경숙, 이주연. (2004). *살풀이춤의 무용미학적 고찰*. *한국스포츠리서치*, 15(5), 511-524.
- Anne Hollander. (1996). *의복과 성*. (채금석 역). 경춘사. (원저 1995 출판).
- 코미디개그 자료검색일 2014. 7. 11, 자료출처 <http://blog.naver.com/sw068?Redirect=Log&logNo=201696415>
- 코미디개그 자료검색일 2014. 7. 11, 자료출처 http://search.daum.net/nate?w=img&nil_search=btn&D A=NTB&enc=utf8&q=%EA%B0%9C%EA%B7%B8+%EC%BD%98%EC%84%9C%ED%8A%B8+%E

- C%B2%B4%ED%8F%AC%EC%99%95
 드라마. 자료검색일 2014. 7. 11, 자료출처 <http://tvdaaily.asiac.co.kr/read.php3?aid=127201140255838002>
- 드라마. 자료검색일 2014. 7. 11, 자료출처 <http://leesanm.tistory.com/2313>
- 드라마. 자료검색일 2014. 7. 11, 자료출처 <http://blog.naver.com/arumico?Redirect=Log&logNo=130045244757>
- 드라마.자료검색일 2014. 7. 11, 자료출처 <http://blog.naver.com/leejin04?Redirect=Log&logNo=100099329020>
- 막사발. 자료검색일 2014. 7. 11, 자료출처 <http://blog.naver.com/hwarm?Redirect=Log&logNo=80045122661>
- 쇼예능. 자료검색일 2014. 7. 11, 자료출처 <http://media.daum.net/entertain/culture/newsview?newsid=20060515065510474>
- 드라마. 자료검색일 2014. 7. 11, 자료출처 <http://cafe.naver.com/naverreviewcafe/19>
- 미디어 이용시간. 자료검색일 2013. 9. 30, 자료출처 <http://blog.naver.com/cnwon00?Redirect=Log&logNo=30178470539>
- 백자철화포도문호. 자료검색일 2014. 7. 7, 자료출처 http://ljqulag7y+s64+E66y47JaRIOuwseyekO2VreyVhOumrA==&enc=utf8§ion=kin&rank=3&search_sort=0&spq=0&pid=RJxHUSpySEssvjGMvsssssst4-493909&sid=U7x5HgyVmUAAAmHF1w
- 분청자기. 자료검색일 2014. 7. 11, 자료출처 <http://search.daum.net/search?w=img&q=%EB%B6%84%EC%B2%AD%EC%9E%90&docid=33PTEkR3eqw3Ey2l71&DA=IIM>
- 드라마. 자료검색일 2014. 7. 11, 자료출처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72591004&logNo=70131785410>
- 드라마. 쇼예능. 자료검색일 2014. 7. 11, 자료출처 <http://cafe.naver.com/zenco1/4353>
- 쇼예능. 자료검색일 2014. 7. 11, 자료출처 <http://media.daum.net/entertain/eneews/newsview?newsid=20070120161719028>
- 쇼예능. 자료검색일 2014. 7. 11, 자료출처 http://search.daum.net/nate?nil_suggest=btn&w=img&DA=SBCO&q=%EC%87%BC+%EC%9D%8C%EC%95%85%EC%A4%91%EC%8B%AC+%EC%9D%B4%ED%9A%A8%EB%A6%AC+
- 드라마. 자료검색일 2014. 7. 11, 자료출처 http://xpportsnews.hankyung.com/?ac=article_view&entry_id=243147
- 드라마. 자료검색일 2014. 7. 11, 자료출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6&oid=112&aid=0000018865>
- 쇼. 자료검색일 2014. 7. 11, 자료출처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urbantattoo&logNo=10093244338>
- 쇼. 자료검색일 2014. 7. 11, 자료출처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wjsrudtrn22&logNo=80143848453>
- 쇼. 자료검색일 2014. 7. 11, 자료출처 http://imagesearch.naver.com/search.naver?sm=ext&viewloc=1&where=idetail&rev=31&query=%EC%A7%80%EB%93%9C%EB%A0%88%EA%B3%A4§ion=image&res_fr=0&res_to=0&ie=utf8&face=0&color=0&ccl=0&aq=0&spq=1&nx_search_query=%EC%A7%80%EB%93%9C%EB%A0%88%EA%B3%A4&nx_and_query=&nx_sub_query=&nx_search_hlquery=&nx_search_fasquery=&datatype=0&startdate=0&enddate=0&start=334&img_id=blog5530867%7C11%7C60142826307_7
- 커피프린스. 자료검색일 2014. 7. 11, 자료출처 <http://blog.naver.com/won2clove?Redirect=Log&logNo=90019673109>